



4월 9일
금요일

보도자료

생명의 땅 으뜸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실과	농업정책과	과장	손명도	팀장	차은령	☎	286-6240
----	-------	----	-----	----	-----	---	----------

전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12일 사용 개시!

- 도내 95천여 여성농어업인의 문화활동 도움 기대 -

전라남도는 전체 농어업인의 52.4%에 이르는 여성농어업인의 문화·복지 생활을 뒷받침할 '행복바우처 카드' 사용을 오는 12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금년 사업 대상자 확정을 위해 지난 2월말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시·군청의 검증을 마무리했다.

금년에 지원을 받을 대상자는 전남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75세 이하의 여성농어업인이며, 총 95천 여명에 이른다.

대상자는 본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카드 발급 희망 농협에 방문하여 신분 확인을 거치고 자부담 2만 원을 납부하면 즉석에서 20만원권의 기프트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바우처 카드는 여성들의 문화·복지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화관, 서점, 식당, 마트, 미용실 등에서 사용가능하다.

다만, 총포류판매점, 귀금속점, 골프장, 카지노, 게임방,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전남도는 아울러 지난 2월 접수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여성농어업인에 대해서도 6월초에 별도 신청 기간을 추가로 운영해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손명도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행복바우처 사업에 대한 현장의 호응이 매우 높다”며 “카드 사용 잔액은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는 만큼 반드시 연말까지 모두 사용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민선7기 도지사 공약으로, 농촌 현장의 높은 만족도를 반영해서 금년에는 전년대비 8억원을 증액한 19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대상 인원도 4천명이 늘어난 95천여 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